

작품 8

<덴만구 신사 엔기 그림(엔주오인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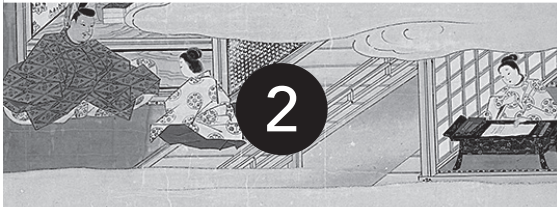
제1폭



1

1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동자 모습으로 스가와라노 고레요시 저택에 나타나 고레요시의 아들이 되었다.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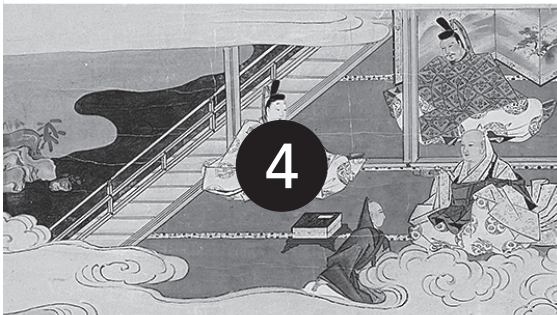
미치자네가 11세의 나이에 한시를 지었다.



3

3

18세의 젊은 나이에 관료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을 허락받았다.



4

4

21세-22세 무렵에 승려 엔닌의 저서 『현양대계론』의 서문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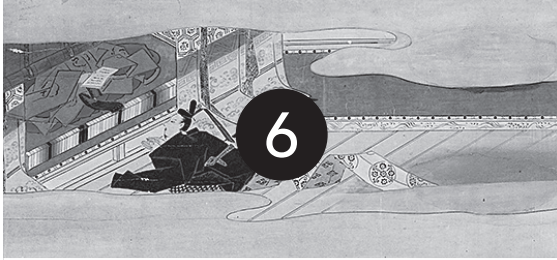


5

5

26세에 미야코노 요시카의 저택에서 열린 활놀이에서 모든 활을 명중시켜 학문과 무예에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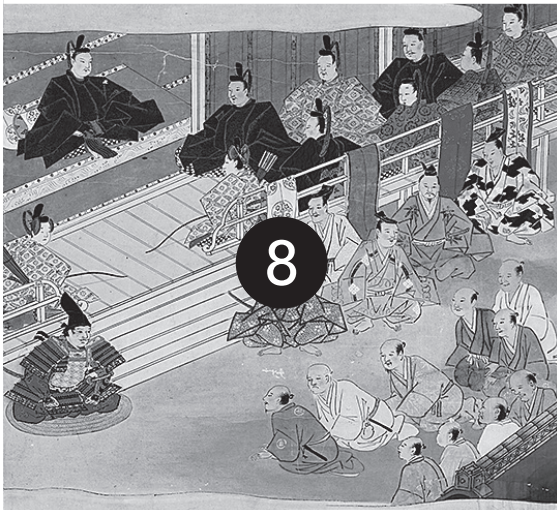
제2폭



6 천황 보좌 모토쓰네의 요청으로, 미치자네는 34세의 나이에 『몬토쿠 천황 실록』의 서문을 집필했다.



7 우다 천황이 매 사냥을 하자, 동물에게 무슨 죄가 있어 사냥을 하는 지에 대해 논하여 '살생'을 금할 것을 상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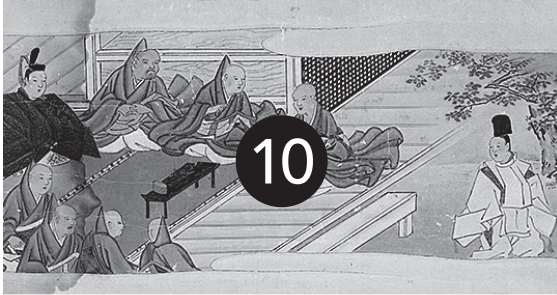


8 42세에 지방 관직 사누키노카미로 임명받아 취임지를 잘 다스렸다.



9 46세에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수도 교토로 돌아왔다.

제3폭



10 깃쇼인 신사에서 미치자네의 50세 생일을 축하하는 법회가 이루어졌다. 어디선가 노인이 나타나, 기원문과 함께 사금을 미치자네에게 바쳤다. 이는 우다 천황으로부터의 축하품이었다.



11 51세에 다이고 천황(당시 황태자)의 명으로 2시간에 시 10수를 짓고, 이듬해에는 4시간에 20수를 지었다.



12 54세에 우다 법황을 수행하여 다무케야마하치만구 신사를 참배하여 시를 읊었다.



13 53세에 조정의 최고기관 다이조칸의 다이나곤직에 취임했다.



14 55세에 다이조칸 고관 우다이진직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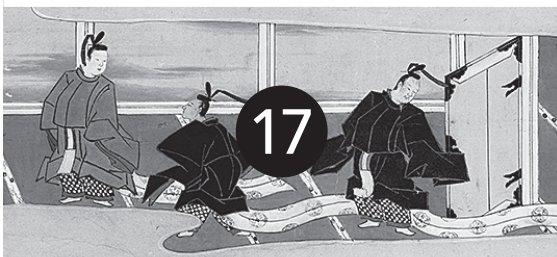
제4폭



15 미야코노 요시카가 수도 교토의 나성문을 지나며 한시를 짓고자 하였으나, 상구까지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문에 있던 귀신이 시의 하구를 지어주었다. 요시카가 미치자네에게 이 시를 들려주자, 미치자네는 하구를 지은 것이 귀신임을 간파했다.



16 미치자네는 다이조칸 사다이진 후지와라노 도키히라와 도모노 요시오(반다이나곤)로부터 키가 작다고 놀림받아, 둘의 뺨을 때렸다.



17 미치자네의 출세를 시기한 후지와라노 도키히라와 후지와라노 스가네 등이 긴밀하게 음모를 꾸몄다.



18 후지와라노 도키히라는 미치자네를 저주하여 죽이고자, 다양한 저주행위를 벌인다.



19 수도 교토에서는 미치자네에 의한 모반의 소문이 돌아, 큰 소란이 되었다.

제5폭



20 도키히라가 다이고 천황에게 미치자네의 모반에 대해 참소했다.



21 미치자네는 57세에 좌천의 명을 받았다.



22 우다 법황은 미치자네의 유배를 막고자 다이고 천황을 설득하기 위해 행차하지만, 후지와라노 스가네가 이를 막았다.



23 미치자네는 교토의 저택 흥매전에 피는 매화와 벚꽃에게 이별을 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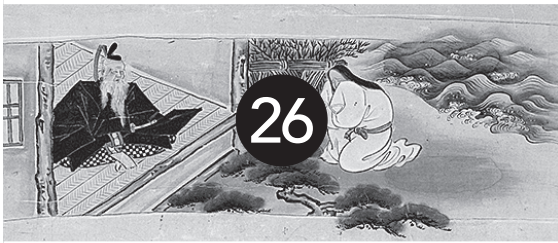


24 미치자네는 교토를 출발하여 소달구지를 타고 다자이후로 향했다.

제6폭



25 미치자네 일행은 배로 세토 내해를 건너 다자이후로 향했다.



26 미치자네 일행이 하리마노쿠니(현재 효고현)의 아카시역에 도착하자, 역장은 미치자네의 변해버린 모습에 놀라면서도 정성 들여 대접하였다.



27 지쿠젠노쿠니(현재 후쿠오카현) 하카타에 도착한 미치자네 일행. 미치자네가 배에서 내려 쉬고자 하나 깔개가 없어, 배의 밧줄을 꼬아 만든 깔개를 깔고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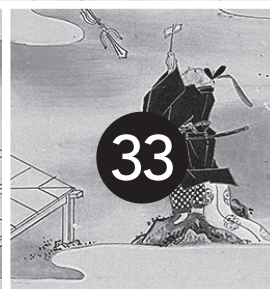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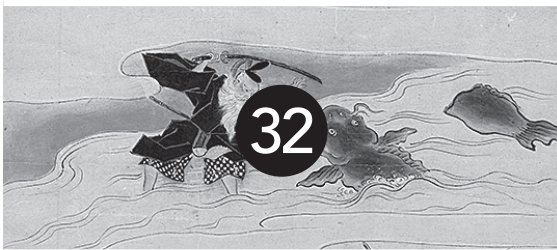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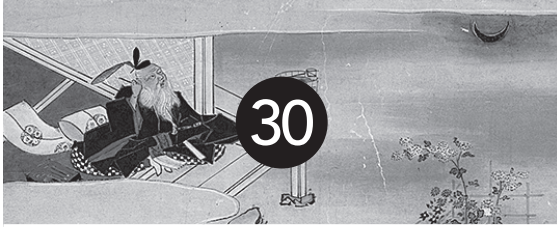


28 다자이후로 향하는 도중 미치자네는 강물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같다고 하며 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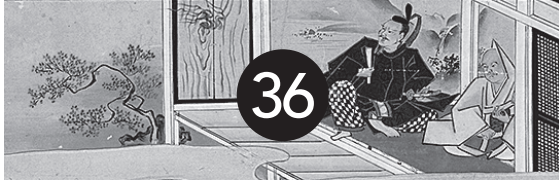
29 다자이후에 도착한 미치자네 일행은 어느 집에 묵게 해 주길 청한다. 주인은 거절하고자 하나, 노파는 선뜻 집으로 불러들여 누룩밥을 대접했다.

제7폭



- 30** 미치자네는 유배지에서 수도 교토를 그리워하며 시를 지었다.
- 31** 미치자네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덴파이산 기슭에서 50일 간 폭포 수행을 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자 하는 노인을 만나, 자신의 수행이 충분치 않다며 폭포로 다시 돌아갔다.
- 32** 큰 메기가 늪에 살며 통행인들을 괴롭혔다. 어느날 그곳을 지나고자 한 미치자네를 메기가 방해하여 칼로 베니, 메기는 돌이 되었다.
- 33** 유배지의 높은 산인 덴파이산에서 하늘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미치자네는 마침내 '덴마다이지자이텐진(天滿大自在天神)'이라는 신이 되었다.
- 34** 미치자네는 59세라는 나이에 실의에 잠긴 채 죽음을 맞이한다.
- 35** 유골을 나르는 소달구지가 도중에 멈추었고, 미치자네는 그곳에 묻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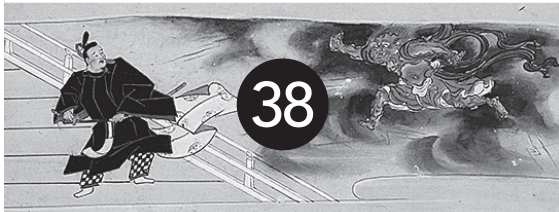
제8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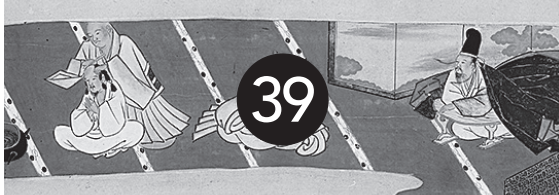
36 미치자네의 원령이 천태종의 최고승 손이 앞에 나타나, 조복(불력으로 원령 등을 항복시키는 일)을 중지하도록 요청한다. 손이가 이를 거절하자, 미치자네가 입에서 뱉어낸 석류가 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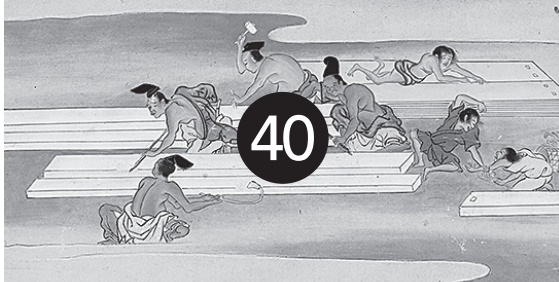
37 손이가 입궐하고자 하니, 범람하던 가모가와 강의 물이 빠져 길이 열렸다.



38 미치자네의 혼이 천둥번개신이 되어, 천황의 거처에 천둥과 번개를 내렸다. 도키히라는 칼을 뽑아 대항했다.



39 병이 든 도키히라.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의식이 행해지지만 청룡에 의해 저지되어, 이윽고 도키히라는 숨을 거뒀다.



40 다자이후에 위치한 미치자네의 무덤 위에 절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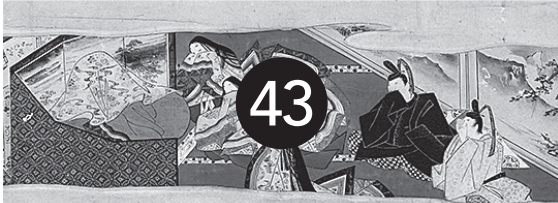
41 미나모토노 긴타다는 갑자기 사망하나, 3일 후 회생하여 저승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이고 천황에게 전한다.

제9폭



42

42 또다시 천황의 거처에 천둥번개신이 나타나 천둥과 번개가 치고, 여럿이 죽고 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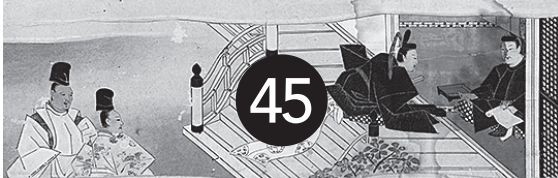
43

43 다이쇼 천황은 출가하여 붕어했다.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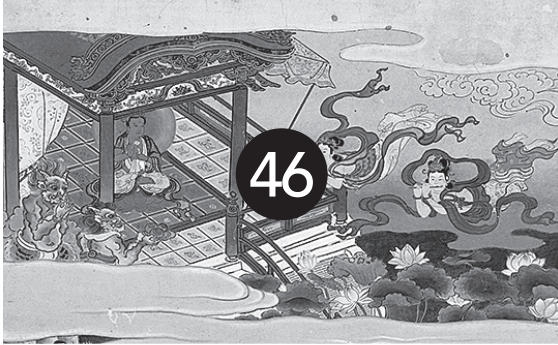
44 7년 동안 3번이나 대궐이 불탔으며, 그 재건 도중 목재가 충해를 입었는데 그 모양이 미치자네가 지은 시 모양이었다.



45

45 안라쿠지 절에 칙사가 파견되어, 죽은 미치자네에게 다이조칸 고관 사다이진의 관직이 부여되었다. 이듬해에는 다이조칸의 최고위직 다이조다이진의 관직이 부여되었다.

제10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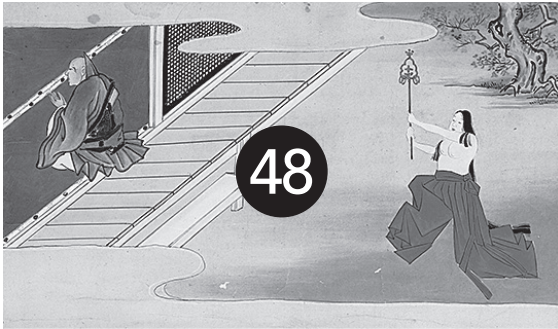


46 긴푸산에서 수행중인 승려 니치조는 갑자기 사망하나, 육도를 돌고 13일 후에 회생했다. 다이조이토쿠텐(大政威徳天)이라 하는 신이 된 미치자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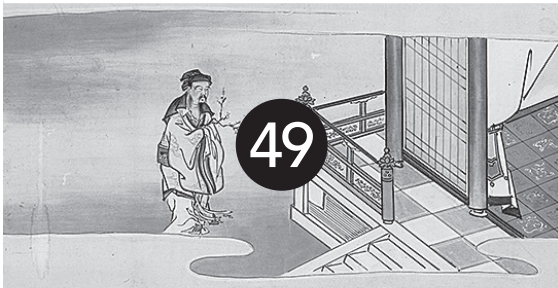


47 육도 중 지옥에 있는 니치조.

제11폭



48 여인에게 마음을 품었다고 누명을 쓴 승려 닌슌이 기타노텐만구 신사에 기원하고 시를 읊었다. 그러자 소문을 퍼뜨린 여인이 미쳐 날뛰며 거짓임을 자백하여, 닌슌의 억울함이 풀렸다.



49 선승 엔니의 꿈에 미치자네가 나타나 선종의 가르침을 받고싶다고 하여, 중국의 고승 무준사범을 소개했다. 그러자 미치자네는 하룻밤 사이에 중국으로 건너가 선종을 습득하고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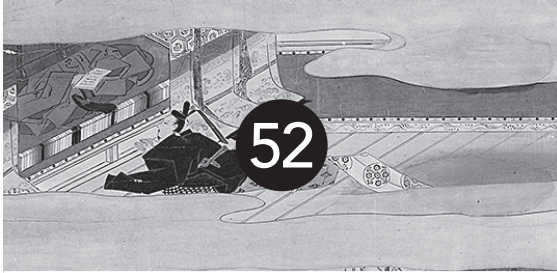


50 히고야쓰시로(현재 구마모토현)를 다스린 나와 아키타다는 전투에 패하여 수도 교토에 호소하러 가는 도중, 증서를 분실하고 만다. 안라쿠지 절(다자이후텐만구 신사)에 참배하자, 어부가 잡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증서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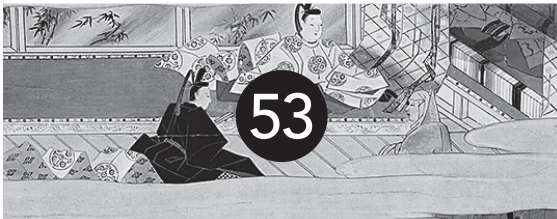


51 오에노 마사후사에 의해 시작된 신행식(神幸式, 신사 제사의 한 형식으로 신체나 신위를 실은 가마 영여를 매고 제신과 관련된 장소를 행진한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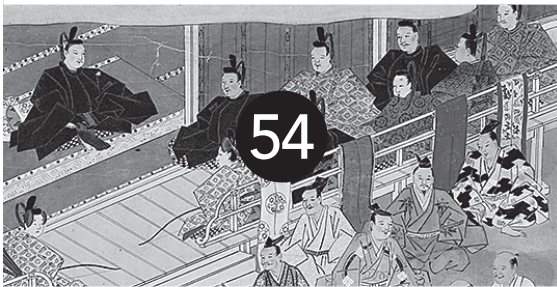
제12폭



52 미치자네의 자손인 스가와라노 스케마사가 다자이후에 사당과 탑을 세웠다.



53 옷을 훔쳤다고 누명을 쓴 한 여인이 기타노 텐만구 신사를 찾아 기도하자, 진범인 시키시마라는 여인이 훔친 의상을 들고 나타났고, 여인은 누명을 벗었다.



54 오에노 마사후사가 안라쿠지 절에서 신행식(神幸式)을 시작했다.



55 몽고군이 침략해 왔을 때 안라쿠지 절에서는 몽고군이 물러가길 기원하여, 대반야경의 전독과 함께 여럿이 시를 짓는 모임이 행해졌다.